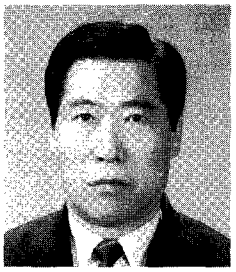
□ 신년특별기고

국제화 시대의 양계인의 자세



천 중 인
축산기술연구소장

우리나라 양계산업은 WTO체제의 출범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특히 육계산업은 '97년 7월 1일 이후 닭고기 시장의 완전개방을 앞두고 경쟁력을 제고하지 않으면 무한 경쟁시대에서 더욱 어려운 처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우리 양계인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사육규모의 전업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생산비 절감 및 생산물의 품질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은 국제 경쟁력에서 뒤떨어지고 있으며, 제2의 도약을 하지 않는 한 급변하는 무역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양계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 양계인 모두가 생산비를 절감하고 양계산물의 품질을 세계수준으로 향상시켜야만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양계인들의 의식 또한 개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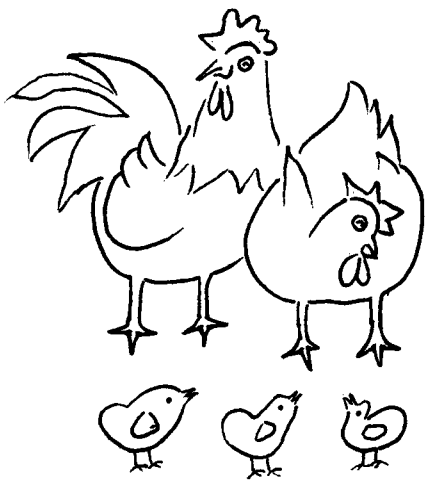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병아리의 생산원가를 낮추고 품질이 우수한 병아리를 생산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육용종계 1수당 90~95수의 병아리 생산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으며 최소한 외국수준인

130수 이상을 생산할 때 생산비를 낮출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종계장과 부화장의 사육환경개선, 부화 위생, 방역관리, 사료 및 사양관리를 철저하고 과학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산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료비의 절감을 위해서는 사료의 품질을 개선하여 사료효율을 높이고 사료의 생산, 유통 및 구매에 있어서 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는 급이, 급수, 집란, 계분 제거 등 제반시설을 자동화 하여 최소한 1인당 사육수수를 3만수 이상으로 해야 하며, 특히 환기시설을 개선하여 소모성 질병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양계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도 우리 양계인은 노력을 배가시켜야 할 것입니다. 수입 양계산물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제 신토불이만 외쳐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소비자가 우리 양계산물을 스스로 찾아 구매 할 수 있도록 생산농가는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얼굴 있는 물건을 생산하는데 노력하고 가공 및 유통분야도 신선하고 좋은 품질의 양계산물이 식단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하며 또한 우리 닭고기와 계란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홍보와 함께 소비 촉진에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양계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 할때 우리 양계산업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양계인의 자세입니다. 우리 축산기술연구소에서도 그동안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산란계산업을 위해 계란의 난각질을 개선하여 연파란 발생을 줄이고 사료비 절감을 통한 생산비를 낮출 수 있도록 오전과 오후에 사료를 분리 급여할 수 있는 사료 및 급여기술을 개발하여 특허출원과 더불어 양계농가에도 이러한 기술이 전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양계